

# 제주도 신화 속 꽃의 의미 및 상징성

강 명 혜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 I. 서 언
- II. 제주도 신화 속 ‘꽃의 의미 및 상징성’
  - 1. 능력 증명의 징표
  - 2. 재생, 환생 상징
  - 3. 멸망시키거나 죽이는 기능
  - 4. 인간 생명을 상징
  - 5. 관상(觀賞)의 의미
  - 6. 생체 치유의 기능
- III. 결 언

### <국문 요약>

우리나라 제주도 신화에는 상당히 주요한 모티프인 꽃, 그것도 신화 텍스트를 이끄는 의미심장한 주요소로서 꽃이나 꽃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량 등장하고 있었다. 본 논의는 오직 제주도 신화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 내재한 ‘꽃과 ‘꽃밭’의 의미나 기능, 상징성 등을 규명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꽃과 꽃밭은 1) 능력 증명의 징표 2) 재생, 환생 상징 3) 멸망시키거나 죽이는 기능 4) 인간 생명을 상징 5) 관상의 의미 6) 생체 치유의 기능 등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꽃에다 비유한 것은 제주도는 사시사철 따뜻한 편이라 꽃이 지천이기 때문일 것이다. 선조들은 꽃은 봄우리가 맺고 피고 지고 다시 피고, 또 겨울이 되어 보이지 않다가도 봄에는 다시 재생하는 것이 인간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으면서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는 것과 닮아 있다고 인식했었다고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신화에서 꽃과 꽃밭은 인간 생애의 모든 것이 녹아있다. 즉 태어나고, 성장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살다가 죽고, 다음 세대도 그렇게 이어지는 ‘인간 존속 법칙이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통해 꽃의 일생과 닮았다고 인지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꽃은 바람이 불면 웃는 듯도 하고, 싸우는 듯도 하며, 꺾기기도 하고, 다시 살기도 하는 형상도 마치 인간의 그것과 흡사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이렇듯이 꽃과 꽃밭에는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이 형상화되어 있으며 통과의례적 측면도 아키타입화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제주 신화 속 꽃과 꽃밭은 여러 가지의 원관념을 지닌 보조 관념으로서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형상적이고, 구체적이며, 가시적으로 직조시킨 응집물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는 꽃이 별로 없는 북방의 신화에는 나무 여신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주제어: 징표, 꽃, 상징, 재생, 환생, 관상, 멸망, 생체, 원형.

## I. 서 언

인류에게 있어서 ‘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물질’이며 ‘상징물’이다. 현상적 의미로서의 ‘꽃’, 혹은 ‘관용적’ 의미로서의 ‘꽃’이 모두 그러하다. 따라서 꽃은 인류초기부터 문화, 예술의 대상이 되었으며 초기 작품부터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삼국유사』 <헌화가>에 등장하는 ‘철쭉’이 문헌상 최초로 등장하는 꽃이다. 서양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꽃의 신인 플로라가 등장하며, 수선화, 달맞이, 아네모네, 희아신스, 후리지아, 국화 등의 꽃이 생기게 된 내력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국화는 꽃을 좋아하는 타게스가 변한 꽃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유물인 ‘홍수아이’ 유물에도 나타나는 꽃이다. 즉, 1983년 발견된 홍수굴에서 약 4만 년 전에 살았던 4~5세의 어린아이 뼈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 뼈 화석 위에는 고운 흙을 뿌렸고 동굴 벽과 뼈 주변에서는 여섯 종류의 식물 꽃가루가 채집되었으며, 홍수 아이의 가슴과 주변에서 국화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sup>1)</sup> 현대에도 장례식에는 주로 국화꽃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국화에는 어떤 집단무의식, 즉 원형적 특질이 내재해 있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그 외에 고대인들이 매장 의식으로 꽃을 뿌렸다는 고고학적 증거물로 네안데르탈인의 예와 이집트 파라오(투탕카멘)의 무덤에서도 발견된 꽃다발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시대를 관통하며 사랑과 애도의 표징으로 되풀이 되며 등장하는 모티프가 바로 꽃이다.

이러한 꽃은 우리나라 제주도 신화에 상당히 주요한 모티프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제주도 신화 속에는 꽃, 그것도 신화 텍스트를 이끄는 의미심장한 주요소로서 꽃이나 꽃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량 등장한다. 혹자는 모든 무가에서 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아마 후대로 내려오면서 사라지고 제주도 무가에만 이러한 요소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듯싶다. 왜냐하면 중국에도 남

1) EBS, 다큐프라임, 홍수아이 편 참조.

쪽 지역에는 꽃과 관련된 신화가 많이 등장하지만 북쪽 지역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북쪽지역에는 ‘나무’와 관련된 신화가 주로 등장한다. 유화, 즉 ‘버드나무 여신’이 그것이다. 몽고나 만주도 ‘나무’, 즉 ‘어머니 나무’를 섬긴다. 그러나 중국 남부에는 장족, 마이난족, 부이족, 무라오족, 홍야오족紅瑤, 차산야오茶山瑤 등의 花婆신앙에서 보듯이 꽃을 섬기는 경우가 많다. 화과는 우리나라의 ‘産神’의 기능과 곡식신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김선자는 화과를 “① 창세신, ② 창세신 부뤄툰의 아내, ③ 꽃에서 태어나 인간에게 아이를 가져다주는 여신”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sup>

이런 점에서 볼 때도 제주도 신화에 나타나는 ‘꽃’이나 ‘꽃밭’은 제주도 신화의 가장 큰 특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주도 신화 속 꽃이나 꽃밭에 주목한 논문은 여러 편 있다.<sup>3)</sup> 하지만 꽃이 기능이나 의미, 상징성을 주로 ‘탄생과 재생, 생명, 서천꽃밭을 인간생명의 원론적인

2) 김선자, 「중국 남부 소수민족 신화에 나타난 꽃의 여신 <花婆>와 민속, 그리고 서천꽃밭」, 『비교민속학』 45쪽.

3) 강정식, 《濟州島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김명희, 「무(巫)의 ‘꽃밭’에 나타난 ‘위대한 어머니’(The Great Mother)인 ‘원강암」, 『비교민속학』 47, 2012. 김선자, 「중국 남부 소수민족 신화에 나타난 꽃의 여신 <花婆>와 민속, 그리고 서천꽃밭」, 『비교민속학』 45. 김은수, 「불교경전에 나타난 꽃의 의미와 화예 표현 형식」, 『한국화예디자인학회』 12집, 2005. 김창일,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11집 2006. 김현선, 「臺灣 布農族濟州島·宮古島의 敍事詩와 神話比較」, 『탐라문화』 36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나카무라 고이치, 조성진, 조영렬 역, 『한시와 일화로 보는 꽃의 중국문화사』, 도서출판 뿌리와 이파리, 2004. 문영란, 「화훼의 상징적 알레고리를 통한 꽃말에 관한 연구」, 『한국화예디자인학연구』 27권 0호, 한국화예디자인학회, 2012. 박명희, 「한국 무교 의례에 나타난 꽃의 의미와 상징성에 대한 연구」, 『한국화예디자인학연구』, 10권, 2004. 이수자, 「무속의례(巫俗儀禮)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제14집, 2007.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최원오,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의 기능과 위상」, 『겨레어문학』 53집, 2014. 조홍윤, 「안락국전 연구-원앙부인 본풀이」, 『사머니즘 연구』 2집, 한국사머니즘학회, 2000.

문제를 다루고 해명해 주는 신화적 생명공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정된 의미로만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김창일도 비판하면서 보다 넓은 의미로 꽃과 꽃밭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창일이 규명한 ‘꽃밭’의 의미인 ‘신이 깃들어 있는 공간, 지화는 신이 하강하는 통로, 혼돈 속에 빠진 이승을 질서의 세계로 원상회복시켜 주는 구실을 하는 공간, 이상향이 아니라 파괴된 현실을 바르게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 본질은 재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생을 통해 저승으로 잘 가는 혹은 신으로 잘 좌정하는 꽃밭은 인간과 신의 공유 공간이면서 동시에 신화속의 인물에게 신의 능력을 부여하는 공간<sup>4)</sup> 등 기존의 학설과 다르게 보고 또 의미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현존하는 무속인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점을 추출하고 있기에 전자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지나치게 한정적이거나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의는 이러한 모든 점을 염두에 두고 제주도 신화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 내재한 ‘꽃’과 ‘꽃밭’의 의미나 기능, 상징성 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sup>5)</sup>



히아신스



수선화



플로라



4) 김창일,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11집, 2006.

5) 꽃 사진은 구글에서 다운로드 받음. 제주도 풍광은 2009년도에 필자 찍음.

## II. 제주도 신화 속 꽃의 의미 및 상징성

### 1. 능력 증명의 징표

‘꽃’은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한 대상으로서 원초적 특성 및 의미를 지니고 있고 많은 효용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꽃이 제주도 신화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보유한 주요소로 등장한다. 제주도 신화 텍스트 속의 꽃은 우선 ‘특별한 능력’의 징표로 작용하고 있다. 꽃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꽃 피우기’이다. 꽃 피우기 내기가 시행되고 있는 신화는 <천지왕 본풀이>와 <삼승할망 본풀이>이다. 이들 작품들은 의미심장하게도 起源에 관한 신화이다. <천지왕 본풀이>는 ‘천지개벽’이라는 명칭처럼 태초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신화이다. 특히 이승과 저승이 나누어지고 이승과 저승을 누가 다스리느냐하는 이야기 담이다. <삼승할망 본풀이>는 産神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다. 산신, 삼승할망, 생불왕, 생불할망, 인간할망, 이승할망, 불도할망, 불법할망 등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삼공맞이 본풀이는 아기 낳은 것을 관장하는 신의 기원과 이와 대치된 인물인 저승할망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 기원에 대한 역할을 정하는 과정 중에 ‘꽃 피우기’가 등장한다. 따라서 이때의 꽃 피우기는 능력을 판별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화소이다. ‘꽃을 잘 피우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고, 아이를 낳게 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에 해당된다. 즉 여기서 ‘꽃’은 ‘대단한 능력’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것이다.

<천지왕 본풀이> 중에 ‘꽃’과 관련된 이야기 화소는 다음과 같다.<sup>6)</sup>

- ① 천지왕은 곧 이승은 형인 대별왕이, 저승은 소별왕이 차지해서 질서를 바로잡아 통치하도록 했다.
- ② 이승은 누구나 욕심이 나는 곳이었다. 소별왕은 어떻게든 이승을 차지하고 싶었다. 한 가지 꾀가 떠올랐다. 형한테 수수께끼를 제안한다. 문제 중

6) 신화의 내용은 모두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참조.

하나가 꽃 피우기이다. “설은 형님아, 그렇거든 꽃이나 심어서 잘 번성하는 자는 이승을 차지해 들어서고, 이올어 꽃이 피는 자는 저승을 차지해 들어서게 어떻습니까?” 형은 이를 곧 수락했다.

- ③ 형제는 地府王에게 가서 꽃씨를 받아다가 은동이, 늦동이에 꽃씨를 각각 심었다. 꽃은 움이 돋아났다.
- ④ 형이 심은 꽃은 나날이 자라서 번성한 꽃이 되어 가는데 동생이 심은 꽃은 이올어 가는 꽃이 되어 갔다.
- ⑤ 동생은 잠을 오래 자는 수수께끼를 제안하고 형이 자는 동안 꽃을 서로 바꿔치기 한다.
- ⑥ 동생이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고 보니 형 앞의 꽃은 동생 앞에 가고, 동생 앞의 꽃은 형 앞에 가 있다. 형이 진 것이다. 형은 저승을 차지해 간다.
- ⑦ 이승은 그러나 모든 것이 혼돈 세상이었다. “하늘에 해도 둘, 달도 둘이 떠서 만백성들이 낮에는 더워 죽어 가고, 밤에는 추워 죽어 가고 있었다. 초목과 새 짐승들이 말을 하여 세상을 뒤범벅이고 귀신과 생인의 구별이 없어 귀신 불러 생인 대답하고 생인 불러 귀신이 대답하는 판국이였다. 역적, 살인, 도둑, 간음 등 혼란한 상태였다.” 이것을 평정할 능력이 없는 동생은 형한테 도움을 청한다.
- ⑧ 착한 형은 이를 수락한다. 천근 활과 천근 살을 준비해서 하늘의 해와 달을 하나씩 떨어뜨려서 백성들을 살기 좋게 한다. 초목과 새 짐승이 말하는 것은 소나무 껍질 가루로서 놀렸다. 송피 가루 닷 말 닷 되를 세상에 뿌리니 모든 금수, 초목의 혀가 굳어져서 말을 못하고 사람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귀신과 생인의 분별은 무게로써 갈랐다. 백 근이 차는 놈은 인간, 백근이 넘는 놈은 귀신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이것까지만 형이 해 주었기에 나머지 문제는 그대로 이승에 있게 되었다.
- ⑨ 지금도 형이 다스리는 저승법은 맑고 공정하다.

대별왕이 꽃 피우기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소별왕은 계략을 이용해서 이승을 차지하지만 능력이 부족했기에 이승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대별왕에게 도움을 청한다. 꽃피우기를 잘한, 즉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대별왕은 이승의 법도를 잡아주게 된다. 그러나 역적, 살인, 도둑, 간음 등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았기에 이승에 여전히 이러한 문

제점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아기를 점지하고 출생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맡게 되는 과정에도 능력 실험의 주축은 ‘꽃피우기’이다. 서로 경쟁을 하는 두 여성은 ‘명진국 따님아기’와 ‘동해 용궁 따님 아기’이다. ‘동해 용궁 따님 아기는 이미 부모에게 불효하다가 쫓겨났다는 성격상 결함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해 용궁 따님 아기는 아기를 점지는 했지만 출산시키는 법을 몰라서 생불왕으로는 결격 요인을 안고 있는 인물이다.

‘명진국 따님 아기’는 아기 점지와 출산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 징표로 명진국 따님 아기는 ‘한쪽 손엔 번성꽃, 한쪽 손엔 환생꽃을 거느리고’ 있다. 따라서 지부사천대왕의 추천을 받고 ‘생불왕’이 된다. 하지만 명진국 따님 아기가 옥황상제명으로 생불왕이 되어 가는 도중, ‘처녀물가, 수양버들 밑에서 어느 처자가 우는 것’을 발견한다. 명진국 따님 아기가 ‘생불왕이 된다고 하자 울던 처자는 명진국 따님 아기의 머리채를 잡아 쥐고 마구 매질을 한다. 울던 처자는 동해 용궁 따님 아기이다. 동해 용궁 따님의 제안으로 들은 옥황상제 앞으로 가서 심판을 요구한다. 하지만 옥황상제는 판가름이 어렵다며, “너희들 얼굴 보 건데 알 수 없다. 천계왕을 부르라. 백계왕을 부르라. 꽃씨 두 방울을 내어 주거든 서천서역국 모래밭에 꽃씨 심어서 꽃 번성하는 대로 생불왕을 구별하자”라고 꽃 피우기를 제안한다.

옥황상제가 꽃 심사를 나갔을 때 이미 승부는 나 있었다. 동해 용궁 따님아기의 꽃은 뿌리도 하나요, 가지도 하나요, 순도 하나가 겨우 돌아나 이울어 가는 꽃이 되어 있고, 명진국 따님아기의 꽃은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는 4만5천6백 가지로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옥황상제는 동해 용왕 따님아기 꽃은 이울어 가는 꽃이 되었으니 저승할망으로 들어서고, 명진국 따님아기의 꽃은 번성한 꽃이 되었으니 삼승할망(생불왕:産神)으로 들어서라고 명한다. 이 경우에도 대별왕 때처럼 명진국 따님아기의 아량이 베풀어진다. 대별왕의 아량에는 소별왕의 요청이 있었듯이 용왕의 분부가 떨어지자 동해 용왕 따님아기는 화를 발각 내며, 명

진국 따님아기의 꽃가지를 하나 오도독 꺾어 가지면서 “아기가 태어나서 백 일이 지나면 경풍, 경세 등 온갖 병이 걸리게 하겠노라”라고 심술을 부리는 것이 계기가 된다. 이에 명진국 따님 아기는 “아기가 나면 너를 위해 적삼, 머리, 아기 엷는 맬빵 등 폐백과 좋은 음식을 차려 줄 테니, 서로 좋은 마음을 갖자”라고 달랜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이가 앓으면 이 저승할망을 위해 음식상을 차려 올린다고 한다.

명진국 따님 아기는 곧 생불왕으로 취임한다. ‘한쪽 손에는 번성꽃을 쥐고, 한 쪽 손에는 환생 꽃을 쥐어 앉아 천리를 보고서서 만리를 보며 하루 만 명씩 잉태를 주고 또 해산을 시키곤 했다고 한다. 그래서 매일 초사흘·초이레, 열사흘·열이레, 스물사흘·스물이래에 만민 자손들한테 고마운 사례의 祭를 받는다고 한다.

이렇듯이 제주도 신화 속 ‘꽃 피우기’는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목숨을 살리거나 환생(재생)시키는 기능

제주도 신화에서 ‘꽃’은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이 꽃은 모두 ‘서천꽃밭’에서 꺾어온 것이다. 서천꽃밭에서 사람 살리는 꽃을 꺾어다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는 <이공 본풀이>의 활락궁이, <세경 본풀이>의 자청비, <문전 본풀이>의 칠형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활락궁이는 엄마를, 자청비는 정수남과 남편을, 칠형제는 엄마를 꽃으로 살린다. 보통 서천꽃밭을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신성공간으로 본다. 그 이유는 산 자가 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이다. 하지만 서천꽃밭을 가기 위해서는 개한테 메밀을 던져주고 물을 건너서, 그것도 무릎까지 오는 물, 잔등까지 오는 물, 목까지 오는 물을 지나서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서천꽃밭을 들어가는 입구에는 못이든 강물이든 물이 있다. 저승을 가는 것을 보통 ‘강’을 건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동서고금이 일치한다. 성경의 요단강, 그리스 신화의 아케론, 코퀴토스, 플레

계톤, 스틱스, 레테강, 불교의 삼도천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저승을 지키는 ‘개’이야기도 낫 선 것은 아니다. 제주도 신화에서도 서천꽃밭이나 저승을 가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서천꽃밭은 저승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즉 죽은 자들의 생명을 관장하는 곳이 서천꽃밭인 것이다. 산 사람이 갔기 때문에 저승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저승을 산 자가 갔다 왔던 이야기 담 역시 동서고금에 적지 않다.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도 저승(지옥)을 다녀왔다. 저승을 직접 방문하는 이야기인 <차사 본풀이>이 강림도령도 저승 바로 앞에서 물을 맞는다. “강님은 눈을 질끈 감고 행기못 속으로 텀병 뛰어 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승 연추문에 닿아 있었다.”

이런 모든 점에서 서천꽃밭은 저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서천꽃밭에서 꺾어온 꽃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문전 본풀이>에서 7형제는 노일제대귀일 딸한테 분풀이를 해 놓고 모조리 서천 꽃밭에 올라간다. “이 꽃밭은 뻘살꽃(뻘을 환생시키는 꽃), 살살꽃(살을 환생시키는 꽃), 도환생 꽃 등 가지가지 꽃들을 가꾸는 곳이다. 이곳에서 꽃을 얻어서 나왔는데 주천강 연못물 때문에 엄마를 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7형제는 기도를 통해 이를 극복한다. 일곱형제가 축수를 드렸더니 삼시에 연못이 잦아들었다. 바닥에 어머니의 뻘이 살그랑이 있었다. 이 뻘, 저 뻘 도리도리 모아 놓아 도환생꽃을 위에 놓고 금봉채로 한번 후려쳤다. ‘아이가 봄잠이라, 늦게도 잤구나’ 머리를 긁으며 어머니가 살아났다.”

도환생꽃이라는 의미가 이미 환생을 상징한다. 재생은 “생물체가 절단된 신체의 일부분을 대체 혹은 회복시키는 과정이나 것”라면 “환생(還生)은 죽은 생명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 혹은 “죽은 사람이 모습을 바꾸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sup>7)</sup>이다. 도환생꽃이 의미하는 것은 재생보다는 환생에 해당될 것이다.

<이공 본풀이>에서도 사라도령은 원강암과 헤어져 서천꽃밭으로 가고 아들인 활락궁이가 커서 서천꽃밭으로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 마지

7) Daum 사전에서의 정의.

막 장애물인 물을 건너 서천꽃밭 입구에 들어가는데 서천꽃밭 입구에는 커다란 수양버들이 들어섰고 그 밑에 맑은 연못이 있다. 연못에서 자신의 입지를 알린 할락궁이는 아버지를 만나 꽃밭으로 들어갔는데, 널찍한 꽃밭엔 이름 모를 꽃들이 난만하여 있었다. 사람을 죽여 멸망시키는 수레멜망악심꽃,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내는 환생꽃, 仰天 웃음이 터지게 하는 웃음웃을꽃, 아버지는 하나하나 설명하여 그 꽃들을 따 주었다. 어서 바빠 내려가서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다. 이제 내려가면 제인장재는 죽이자고 달려들 게 뻔하니, 그때엔 일가친족을 다 모아 놓으면 할 말이 있다하여 일가친족 앞에 웃음웃을꽃을 먼저 뿌리라고 가르쳐준다. 한참 웃음이 벌어지거든 다음에 싸움싸울꽃을 뿌려 친족간에 패싸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수레멜망악심꽃을 뿌려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인장재의 작은딸만 살려 두었다가 어머니 죽은 데를 찾아 환생꽃을 뿌려 어머니를 살려내라는 것이다. 할락궁이는 “머리는 끊어 청대밭에 던져 놓고 잔등이는 끊어 흑대밭에 던져 놓고 무릎은 끊어 푸른 띠밭에 던져놓았다. 벌써 뼈만 살그랑하게 있는 것이다. 할락궁이는 어머니의 뼈를 차례차례 모아놓고 환생꽃을 뿌렸다”그러나 “머리를 끊으며 어머니가 살아났다”는 것이다. 그때 할락궁이 어머니를 대밭, 띠밭에 죽여 던졌던 법으로 오늘날도 굿을 할 때 한줌, 띠(茅) 한 줌을 두 손에 들어 이를 수레멜망악심꽃이라 하고 이 꽃이 갖은 사악한 재해를 준다고 한다. 할락궁이는 어머니가 죽었던 그 자리에 제인장재 작은 딸을 죽여 묻어 두고 어머니를 모셔 서천꽃밭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를 상봉하고 꽃감관 자리를 물려받아 잘 살았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제주 신화 속 꽃은 사람들을 재생시키거나 환생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살았지만 서천꽃밭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이승에서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사료된다. 결국 꽃이 영원히 되풀이 되며 피듯이 사람 수명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한다. 여기에는 인류의 오랜 원형상징인 ‘겨울과 봄’의 싸움이 내재

해 있다.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대상은 살리는 대상보다 연장자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래된 것은 죽고(낙엽), 새 것(새싹)이 대치하는 것은 바로 겨울과 봄의 싸움인 것이다. 그 둘이 대적관계는 아니더라도 새 것이 다시 낡은 것을 대치하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법칙을 표상한다. 영원히 지속되고 되풀이 되는 인간 삶의 법칙에 꽃이라는 상징물이 구체적 설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 3. 죽이거나 멸망시키는 기능

꽃이 능력을 상징하거나 생명을 재생, 환생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을 죽이거나 멸망시키는 기능도 한다.

이 때 마침 하늘 옥황에는 큰 사변이 일어났다. ‘이 난을 평정하는 자에겐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을 갈라 주겠다’는 방이 여기저기 나붙었다. 자청비는 서천 꽃밭에서 얻어온 멸망꽃을 가지고 천자 앞에 나아갔다. “미련한 소녀이오나 제가 난을 막겠습니다.” 멸망꽃을 가지고 싸움판에 가고 보니 삼만명의 모든 군사가 칼을 받고 활을 받으며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자청비는 멸망꽃을 내 놓고 동서로 뿌려댔다. 삼만 명의 모든 군사가 건삼밭에 늪은 삼 쓰러지듯 동서로 즐비하게 자빠져 난은 수습이 되었다. 천자는 크게 기뻐하여 자청비를 부르고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을 내주었다. 자청비는 이 후한 하사를 사양했다. “저에겐 오직 땅 한조각, 물 한조각은 과하십니다. 주실 것이 있으며 오곡의 씨앗이나 내려 주시옵소서” 오곡의 씨앗을 내주니 문도령과 더불어 칠월 보름날 인간세상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오늘날도 칠월 보름날은 백중제를 지내게 되는 것이다. <세경 본풀이>

서천꽃밭은 능력이나 재생, 환생시키는 긍정적인 기능만 하는 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멸망꽃, 악심꽃, 수레멸망악심꽃 등 부정적 기능을 하는 꽃도 많다. 나쁜 의미의 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심지어는 “본향으로서의 꽃밭은 원래 선계였는데 인간이 잔혹해졌기 때문에 꽃으로 사람을 죽이는 기능이 파생되어서 못내 씹쓸하고 착잡하다”는 조흥윤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이 말대로라면 제주도민은 육지인들보다 잔혹하다

는 등식이 성립되는 오류를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특히 제주도 신화는 정치·복수가 구체적이고 잔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화에 현실적 정치가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오히려 제주도민은 육지인들보다 신화를 신화답게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지가나 해가에서 신성시 여겨지는 거북이나 용에게 위협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하는 태도, 주몽이 흰사슴을 거꾸로 매달고 비를 청하자 7일간 비가 내려 송양이 행복한다는 이야기 등은 신성한 존재도 현실적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는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원초적 사고인 것이다. 오히려 신과 인간을 엄격히 분리시키는 인식은 소위 말하는 기성종교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sup>8)</sup>라며 제주도 사람이 잔인하기에 사람을 해치는 꽃 이야기가 제주도 신화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님을 항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태도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누군가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무찔러야 한다.’는 명제는 영원하다. 누구의 입장에서 ‘나쁜 도구가 되느냐 하는 원초적 질문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절대로 빛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무릇 세상의 이치는 음양에서 비롯된다. 빛만 존재하지도 어둠만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세상 모든 신화에는 음, 양 혹은 겨울과 여름, 혹은 빛과 어두움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꽃이 존재하는 한 사람을 죽이거나 멸망시키는 꽃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누가 죽느냐’하는 것이다. 썩이나 선한 인물이 억울하게 죽을 때는 ‘꽃이 꺾이는 것’이고 이들을 꽃(도환생꽃 등)으로 재생시키기도 하지만, 악한 인물을 응징할 때 또한 꽃이 필요하다. 이들을 멸망시키는 꽃은 ‘멸망꽃, 악심꽃, 수레멸망악심꽃’이다. 꽃 이름이 명기 하듯이 이들 또한 상징물이다. <이공 본풀이>에서 할락궁이가 김장자 일 가족을 몰살하는 방식은 비현실적이다. 칼이나 활과 같은 살상 가능한

8) 김창일,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11집 2006. 501쪽.

무기를 사용하여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꽃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여기서의 꽃은 우리가 실제 관찰 가능한 의미에서의 꽃은 아니고, 일종의 주화(呪花)라고 보기도 한다.<sup>9)</sup> 이 경우도 결국 비유며 상징인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세계, 어떤 형이상학적 원리가 설명될 때는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꽃을 가지고 사람을 재생시키거나 환생시키는 것이 인류가 영원히 지속되는 법칙을 구체화시키고 있듯이 죽이거나 멸망시키는 기능도 실은 현상학적 법칙을 꽃으로 구체화시킨 결과이다. 꽃은 보조관념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는 바로 누가 어떻게 죽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세경 본풀이>에서 죽임을 당하는 대상은 바로 하늘 세상을 어지럽힌 나쁜 인물, 즉 적군들이다. “자칭비는 멸망꽃을 내 놓고 동서로 뿌려댔다. 삼만 명의 모든 군사가 건삼 밭에 늪은 삼 쓰러지듯 동서로 즐비하게 자빠져 난은 수습이 되었다.” 이때 ‘건삼 밭에 늪은 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죽는 것, 즉 사라지는 것은 ‘늪은’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연계의 질서에서 늪은 것, 낡은 것(낙엽)이 사라지고(죽고), 새 것(새싹)으로 대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늪은 것을 죽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잘못이 아니며 선한 것이다. <이공본풀이>의 활락궁이가 없애는 것은 惡心, 나쁜 마음을 먹었던 대상을 물리친다. 이렇듯이 악심을 물리치는 것도 인간 법칙 속에서 당연하며, ‘善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도 영원한 불변의 법칙이다.

따라서 ‘엄마(낙엽)가 자연계의 법칙 속에서 사라졌다가 새 옷(새싹)을 입고 다시 부활하는 것은 영원한 자연 법칙이며, 인간의 삶에서 되풀이 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내재되거나 제시되고 있는 영원한 아키타입이고 네버엔딩 법칙이다. 무녀들이 <이공본풀이>에 대해 내력풀이 하는 실제 구송을 채록해 놓은 것 중에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sup>10)</sup>

9) 최원오,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의 기능과 위상」, 『겨레어문학』 53집, 2014. 74쪽.

10) 이수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 이공본풀이

우리 어머니 죽은 신체 어디 잇느냐 무르니  
 청대 밧쪽에 있습니다 하거늘  
 청대 밧쪽에 나가보니, 죽은 뼈만 남아 있고  
 이마에는 동백나무가 나서 서 잇고  
 뺏동에는 오동나무가 나서 서 잇거늘  
 뼈 오를 꽃을 너으니, 뼈가 서로 연결하고  
 고기 오를 꽃을 너으니, 살피여 올으고  
 피 올으는 꽃, 오장육부 생기는 꽃 너코  
 옥황께 기도 한 후, 물중남훼초리로 세 번 치니  
 깜짝 놀라며 도환생 되니라 (밑줄은 필자)

아예 엄마의 시신에는 동백나무나 오동나무가 나서 서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동나무나 동백나무 밑에 떨어져 썩고 있는 나뭇잎을 상기해 볼 수 있다. 떨어진 나뭇잎이 썩어서 거름이 되면 봄에는 파릇파릇하게 새잎이 무성하게 나올 것이다. 겨울이 되어 앙상했던 나무들은 봄이 오면 새잎으로 뒤덮이는 광경이 연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새 잎은 지난 번 사라졌던(엄마) 나뭇잎과 똑같다. 아니 동일한 잎인 듯이 보이며 이러한 일은 해마다 지속되면서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결국 자연의 규칙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이 제주도 신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에는 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 이러한 악한 기운은 결국은 선한 것이 물리친다는 것, 무릇 생명이란 나고 살다 죽고 또 새로운 생명이 이러한 순환을 계속한다는 것 등 철학의 기본 명제도 제주도 신화 텍스트 속에 내재해 있다.

#### 4. 인간 생명 자체를 상징

제주도 신화 속 꽃은 인간 생명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꽃이 꺾일 때 인간은 죽으며, 꽃 한 송이가 인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

---

계 서사물의 변용과 의미(1)], 『제주도연구』 10집, 1993, 53쪽.

이 죽은 후 꽃으로 환생한 경우도 제주도 신화 텍스트에 속에 제시되고 있다. <삼승할망 본풀이>에 보면 “삼승할망은 생각 끝에 생불꽃(生佛花)을 하나 가지고 대별상 집으로 갔다. 대별상의 부인 서신국 마누라에게 이 꽃으로 태기를 불러줬다”라고 하고 있다. 꽃을 하나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꽃=인간’이란 공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꽃이 오도독 꺾일 때 사람이 죽듯이 꽃 한 개는 곧 새 생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꽃 그 자체가 인간임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사람이 죽고 나서 꽃으로 환생한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화소는 후대 판소리계 소설인 심청전에도 등장한다. 심청이가 죽어서 연꽃으로 환생하기 때문이다. <차사 본풀이>에서도 죽은 삼형제는 꽃으로 환생하고 있다.

과양생의 처는 이때를 놓칠세라, 얼른 광으로 달려가 삼 년 묵은 참기름을 꺼내 왔다. 청동 화룻불에 기름을 오려 놓고 오송오송 끓여다가 왼쪽 귀로부터 오른쪽 귀로 소록 부어 넣었다. 삼형제는 구름 산에 얼음 놓듯, ‘어머니’, ‘아버지’ 말도 못하고 죽어 버렸다... 쥐도 새도 몰랐다. 하루, 이틀..... 7일이 지나갔다. 과양생의 처는 그 후의 동정이나 살펴보려고 대바구니에 빨랫감을 주섬주섬 담아 놓고 연못에 가 보았다. 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느 때처럼 청청했다.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물 위에 고운 꽃 세 송이가 두둥실 떠 있는 것뿐이다. 과양생의 처는 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앞에 오는 꽃은 병실병실 웃는 듯하고 가운데 오는 꽃은 서럽게 우는 듯하다. 눈을 옮기니 맨 뒤에 오는 꽃은 팔죽같이 화를 내는 듯한 꽃이다. 꽃도 묘하게 고운 꽃이라 욕심이 났다. 과양생이 처는 빨래 방망이를 꺼내 물을 앞으로 당겼다. “이 꽃아 저 꽃아, 내 앞으로 어서 오라.” 꽃이 물결에 흐늘거리며 앞으로 다가오자, 빨래 바구니에 오독독 꺾어 놓아 집으로 가져왔다. <밀줄 필자>

과양생의 처는 삼형제를 죽인다. 그리고 삼 형제 시체를 주천강 연못에다가 수장해 버린다. 7일 후 동정을 살펴보려고 연못에 가 보았던 과양생의 처는 연못에 떠 있는 고운 꽃을 발견한다. 삼형제가 꽃으로 환생한 것이다. 그 징표로 꽃은 ‘병실병실 웃는 듯 하고’, ‘서럽게 우는 듯’ 하며, ‘팔죽같이 화를 내는 듯’ 하고 있다. 웃고, 울고, 화내는 인간의 감정

을 지닌 꽃, 그것도 시체가 있던 그 자리와 형제와 동일한 숫자인 꽃 3개는 형제가 죽어서 꽃으로 환생된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꽃이 물위에 떠있다는 것도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물은 재생의 공간이기 때문이다.<sup>11)</sup> 사실 물위에 넘실넘실 떠 있는 꽃은 양수에 떠 있는 아기의 비유적 표현으로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어쨌든 과양생의 처는 꽃을 보고 자신의 앞으로 오라고 해서 다가오자 꺾어서 집으로 가져와 자신이 좋아하고 자주 왕래하는 곳에 배치한다. 그 위치는 앞문, 뒷문, 대청 기둥이다. 그러나 이 꽃들은 이상한 현상을 보인다. ‘앞문에 걸어 놓은 꽃은 과양생의 처가 마당으로 나갈 때마다 머리를 박박 때고, 뒷문에 걸어 놓은 꽃은 그녀가 장독대에 나갈 때마다 머리를 박박 맨다. 대청 기둥에 걸어 놓은 꽃은 과양생이 밥상을 받고 앉을 때마다 머리를 박박 때는 것이다.’ 이는 바로 이들이 평범한 꽃이 아니라는 것의 표징이다. “이 꽃, 저 꽃, 곱기는 곱다마는 행실이 꽤섬한 꽃이여.” 과양생의 처는 화를 내며 꽃을 북북 비벼서 청동 화롯불에 넣어 버렸다. 구름 산에 얼음 녹듯 바스스 타버렸다는 것이다. 꽃으로 환생했지만 삼형제는 다시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삼형제는 또다시 환생한다. 이번에는 구슬로 환생한다.

조금 있더니 뒷집의 청태국 마구할망이 불을 빌리러 왔다. 과양생의 처는 사랑방에 청동 화로를 헤쳐 보라고 했다. 청동 화로를 헤쳐보니 불은 없고 삼색 구슬이 세 개 오골 오골 나오는 것이었다... 과양생이 처는 이런 이런 횡재가 어디 있느냐는 듯 구슬을 빼앗았다... 석달이 지나가서 과양생의 처는 몸이 이상해져 갔다. 태기가 완연히 나타난 것이다. <차사 본풀이>

과양생의 처는 産神도 아니고 또 산신의 어떤 안배도 없었기에 꽃 자체로는 잉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꽃은 화롯불에 타버렸다. 그 꽃은 다시 구슬로 환생하는데, 여기서 구슬도 생명을 상징한다. 과양생의 처는 생명을 상징하는 ‘구슬’이라는 또 다른 징표를 취한 후에 임신을 한

11) 강명혜, “죽음과 재생의 노래 <공무도하가>”, 『우리문학연구』 18집, 2005, 104쪽.

다. 여기서 꽃은 인간이 환생할 수 있는 대유물로 기능한다.

## 5. 관상(觀賞)의 의미

제주도 신화 텍스트 속의 꽃은 상징과 특별한 의미, 비유로만 등장하지 않는다. 그냥 ‘꽃’ 자체의 가치를 드러내는 경우로도 제시된다. 사실 꽃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마음이 양식이 되는 대상이고, 힐링의 대상이며, 정화의 대상이다.

겨울은 가고 철 따라 봄을 찾아왔다. 어느 날 자청비는 상다락에 올라가 남창문을 열어 놓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문도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는 문도령은 아니 보이고, 남의 입 종놈들이 땀감을 신고 오는 마소의 행렬만이 보이는 것이다. 어러렁떠러렁 하며 몰고 오는 쇠머리엔 저마다 울긋불긋 진달래가 꽃혀 있어, 마치 그 소 모는 소리에 맞추어 일제히 춤을 추는 듯 했다. 그 꽃의 행렬이 한량없이 고왔다. ‘저 꽃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시름을 잊을 것인데..... 저 꽃이라도 하나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밖으로 나오다 정이의신정수남이(남중)을 만났다. 이놈은 처먹고 할 일이 없으니 양지바른데 앉아 바지 허리를 뒤집어 놓고 이를 딱딱 잡고 있는 것이었다. “정이으신정수남아, 아이고 추접하고 누추하다. 먹어놓아 일도 없이 이 사냥만 하거나? 다른 집 종들은 땀감을 해오는데 저거봐라 쇠머리에 진달래꽃 꽃아 놓고 어러렁떠러렁 오는 게 오죽이나 보기 좋으냐” 자청비는 야단을 늘어놓았다. <세경 본풀이> (밑줄 필자)

여기에 등장하는 꽃은 실제 꽃이다. 구경하고 감상하는 구체적 물질로서의 관상용 꽃이다. 꽃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바로 관상용이다. 사실 꽃이 지니는 나머지 기능은 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꽃 자체는 그 자체로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미감을 발현시킨다. 위 텍스트는 ‘겨울은 가고 봄은 찾아왔다’로 시작한다. 어느 날 자청비는 상다락에 올라가 남창문을 열어 본다. 그 때 종들이 땀감을 해 가지고 오는 행렬이 보인다. 그런데 이들 행렬은 독특하다. ‘소머리에는 진달래가 꽃혀 있기 때문이다.’ 이 광경을 자청비는 ‘울긋불긋 진달래가 마치 소 모는 소리에 맞추

어 일제히 춤을 추는 듯'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그 꽃의 행렬이 한량없이 고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 이어서 '저 꽃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시름을 잊을 터인데', '저 꽃이라도 하나 얻을까'라고까지 진행하고 있다. '①꽃을 본다 → ②미감 발현 → ③꽃을 치유 대상으로 인지 → ④소유욕 발현'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통은 ①→②→④번으로 진행하고 끝내는 데 비해 자청비는 ③에서의 꽃의 치유 기능까지 감지하고 있다. 최근 이론으로 알려진 자연을 통한 '치유요법'이 이미 제주도 신화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또 주목할 것은 '봄, 상다락, 남창문, 땀감, 마소, 소머리, 꽃(뭉음으로 피는 진달래), 행렬, 춤' 등 긍정적이고 상서롭고 풍요를 상징하는 어휘와 분위기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꽃이 지니고 있는 풍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꽃의 가장 큰 기능을 어디까지나 관상용이다. 이는 자청비의 '저거 봐라 쇠머리에 진달래 꽃 꽃아 놓고 어령떠령 오는 게 오죽이나 보기 좋으냐'의 대목을 상기할 때 분명해진다. 어떤 꽃이든지 꽃은 바라만 봐도 좋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꽃은 '예쁘다, 곱다, 아름답다'라는 미적 감정과 정서를 발현시키는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차사 본풀이>에도 등장한다.

물 위에 고운 꽃 세 송이가 두둥실 떠 있는 것뿐이다. 과양생의 처는 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앞에 오는 꽃은 병실병실 웃는 듯하고 가운데 오는 꽃은 서럽게 우는 듯하다. 눈을 옮기니 맨 뒤에 오는 꽃은 팔죽같이 화를 내는 듯한 꽃이다. 꽃도 묘하게 고운 꽃이나 욕심이 났다. 과양생이 처는 빨래 방망이를 꺼내 물을 앞으로 당겼다. "이 꽃아 저 꽃아, 내 앞으로 어서 오라." 꽃이 물결에 흐늘거리며 앞으로 다가오자, 빨래 바구니에 오독톡 꺾어 놓아 집으로 가져왔다.

꽃이 물결에 흐늘거리며 앞으로 다가오자, 빨래 바구니에 오독톡 꺾어 놓아 집으로 가져왔다. 앞문에 하나 걸고, 뒷문에 하나 걸고, 또 하나는 대청 기둥에 걸어 놓았다.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골고루 구경하기 좋게 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꽃은 생긴 모양과는 달랐다. 앞문에 걸어 놓은 꽃은 과양생의 처가 마당으로 나갈 때마다 머리를 박박 매고, 뒷문에 걸어 놓은 꽃은 그녀가 장독대에 나갈 때마다 머리를 박박 맨다. 대청 기둥에 걸어 놓은 꽃은 과양생이 밥상

을 받고 앓을 때마다 머리를 박박 매는 것이다. 이 꽃, 저 꽃, 곱기는 곱다마는 행실이 쾌짙한 꽃이여. 과양생의 처는 화를 내며 꽃을 복복 비벼서 청동 화룻불에 넣어 버렸다. <차사 본풀이> (밑줄 필자)

여기에서 과양생 처도 물에 둥둥 떠있는 꽃을 보고 미감이 발현된다. 어떤 꽃인지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고운 꽃’으로 표현되고 있다. 고운 꽃이라는 미감을 느끼자마자 바로 소유욕이 발현한다. ‘꽃이 묘하게 고와서 욕삼이 났던 것이다. 과양생 처는 이 꽃을 ‘오독독’ 꺾어서 집으로 가지고 온다. 가지고 온 꽃으로 과양생 처가 한 일은 바로 관상을 위해 꽃을 여기저기 장식해 놓는 일이다. ‘여기저기’란 과양생 처가 늘 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곳, 즉 앞문, 뒷문, 대청 기둥이다. 과양생 처는 앞문을 지나서 마당을 나가며, 뒷문을 통해서는 장독대를 간다. 즉 부엌일을 할 때마다 보기 위해서 뒷문에 걸어 놓았던 것이다. 마지막 한 곳은 바로 ‘대청 기둥’이다. 이는 그녀가 생활하고 밥도 먹는 공간이다. 역시 과양생 처의 잦은 왕래 범주 공간에 해당된다. 그리고 “골고루 구경하기 좋게 해 놓은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기에서도 ‘관상용으로서의 꽃의 기능’이 잘 표출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꽃이 생긴 것과 다르다는데 있다. 이들 꽃은 과양생의 처가 꽃 관상을 하면서 미감을 분출시킬 기회를 박탈한다. 왜냐하면 과양생의 처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머리를 박박 맨다’가 무슨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과양생 처의 머리칼을 쥐어 뜯는다’는 의미인 듯하다. 확실한 것은 이 꽃들이 과양생 처가 우아하게 꽃 감상을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마당, 부엌, 대청마루 등 생활 공간 곳곳에서 과양생 처를 괴롭히기 때문에 과양생 처는 드디어 참지를 못한다. ‘이 꽃, 저 꽃 곱기는 곱다마는 행실이 쾌짙한 꽃이여’라며 화를 내고 결국에는 ‘꽃을 복복 비벼서 화룻불에 넣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이는 아무리 외관이 아름다워도 미적 쾌감을 야기하지 못하고 해롭다고 느낄 때는 미적 대상으로서의 기능이 박탈된다는 의미를 자아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제주도 신화 텍스트 속에는 꽃 그 자체, 즉 관상 대상으로서

의 꽃의 성향이나 기능이 제시되고 있다.

## 6. 생체 치유의 기능

제주도 신화 속 꽃이나 꽃밭은 ‘관상의 기능’을 하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비유적이며 간접적이다. 그리고 그 상징성은 정신적인 측면에 해당한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나 성질, 성향을 구체적 물체로 가시화시킨 상징물이 바로 꽃인 것이다. 생명을 살리거나 생명 자체를 상징하거나 생명을 죽이는 꽃은 모두 추상적인 기능을 함유하는 상징물이다. 꽃이나 꽃밭은 정신적 측면에 대한 상징물의 보조관념인 셈이다. 이를 만약 질병의 갈래로 본다면 ‘신경정신적’ 측면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능과 의미 외에도 제주도 신화 텍스트 속에는 ‘외과적 기능’ 또한 제시된다. 즉, 꽃으로 사람을 치니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생, 즉 인간의 생체적 부분 부분이 재생되는 가시적이고 즉물적인 광경이 실감 있게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는 피, 살, 뼈와 신체의 부분 부분이 절단되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외과적이고 구체적인 치유적 상태나 순서가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공 본풀이>, <문전 본풀이>에서의 ‘어머니’, <세경 본풀이>에서 ‘정수남’, ‘자청비 남편’은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대상이다.

① 은장도를 꺼내 잡초를 베어 짓히고 살그랑한 뼈를 도리도리 모아 놓았다. 뼈 살아나는 꽃, 살 살아나는 꽃, 도환생꽃을 위에 뿌려 놓고 때죽나무 막대기로 세 번을 후려치니 정수남이는 맷방석 같은 머리를 박박 긁으며 와들랑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푸대쌈은 일단 모면이 되었다. 이젠 죽은 남편을 살려야 한다. 자청비는 곧 서천꽃밭에 들어가 갖가지 꽃을 얻어다가 도환생꽃을 남편의 시체 위에 뿌려서 남편을 살려냈다. <세공 본풀이>

② 머리는 끓어 청대밭에 던져 놓고 잔등이는 끓어 흑대밭에 던져 놓고 무릎은 끓어 푸른 띠밭에 던져놓았다. 벌써 뼈만 살그랑하게 있는 것이다. 할락궁이는 어머니의 뼈를 차례차례 모아놓고 환생꽃을 뿌렸다. “아이고, 봄잠이라 오래

도 잤다.” 머리를 긁으며 어머니가 살아났다. 그때 할랑궁이 어머니를 대밭, 띠밭에 죽여 던졌던 법으로 오늘날도 굶을 할 때 한줌, 띠(茅) 한 줌을 두 손에 들어 이를 수레멜망악심꽃이라 하고 이 꽃이 갖은 사악한 재해를 준다고 한다. 할랑궁이는 어머니가 죽었던 그 자리에 제인장재 작은 딸을 죽여 묻어 두고 어머니를 모셔 서천꽃밭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를 상봉하고 꽃감관 자리를 물려받아 잘 살았다. <이공 본풀이>

③ 일곱 형제는 우선 황세곤간을 달래어 도환생꽃을 몇 송이 얻어 내고 그 길로 오동 나라 오동 고을의 주천강 연못으로 달려갔다. 연못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곳이 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몇천 같은 하느님아, 주천강 연못이나 마르게 해 주소서. 어머니 신체나 찾으리다.”

일곱 형제가 축수를 드렸더니 삽시에 연못이 잿아들었다. 바닥에 어머니의 뼈가 살그랑이 있었다. 이 뼈 저 뼈 도리도리 모아 놓아, 도환생꽃을 위에 놓고 금봉채로 한번 후려쳤다. “아이고 봄잠이라, 늦게도 잤구나.” 머리를 긁으며 어머니가 살아났다. ‘어머니 누웠던 자린들 내버리랴.’

일곱 형제는 어머니 뼈가 놓였던 자리의 흙을 주섬주섬 모아 놓고 시루를 만들었다. <문전 본풀이> (밑줄 필자)

이들 주검의 특징은 자청비 남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만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다만 자청비 남편의 경우는 ‘시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자청비 남편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고, 자청비 남편인 문도령은 하늘 옥황 문곡성의 자제인 문왕성이다. 곧 문도령도 하늘의 신인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마도 다른 주검들과 변별되게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 <세공 본풀이>, <문전 본풀이>에서는 이미 시신이 다 썩어서 다른 부분에 대한 묘사는 없을 정도다. ‘뼈’만 남은 상태다. 따라서 ‘살그랑한 뼈를 도리도리 모아 놓고’ <세공 본풀이>, ‘어머니의 뼈가 살그랑이 있었다. 이 뼈 저 뼈 도리도리 모아 놓고’ <문전 본풀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문전 본풀이>에서는 이미 물 속 깊이 수장된 바닥에서 엄마의 시신을 찾아내고 있다. 이는 사실 가능하지 않다. 연못 속에 있는 시신이 다 부패

되고 뼈만 살짝, 그것도 연못 바닥에 살그랑 있는 것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쨌든 이들을 되살리는 방식은 모두 공통된다. ‘뼈를 모아 놓고’ ‘뼈 살아나는 꽃, 살 살아나는 꽃, 도환생 꽃을 뿌리거나 뿌린 후 막대기, 혹은 금봉채로 후려치는 것’이다. ‘꽃+또 다른 기구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을 살리는 공통된 방식은 이들을 살리는 기구로 모두 ‘꽃’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 엄마는 머리와 잔등과 무릎이 끊어진 채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락궁이는 엄마 시신을 찾아냈는데 엄마는 ‘머리’, ‘잔등이’, ‘무릎’이 절단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상태임을 반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함유하는 것이까? 그것도 한 자리에다 묻힌 것이 아니라 신체를 절단 당해서 청대밭, 흑대밭, 푸른 띠밭 등 여기저기 던져졌다. 할락궁이는 이를 일일이 다 찾아서 모아놓고 도환생꽃을 뿌리면서 엄마를 살리고 있다. 신체가 절단 난 것을 접합시키는 상태는 사실 재생이다. 재생은 “생물체가 절단된 신체의 일부분을 대체 혹은 회복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환생이라기 보다는 재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생은 살아있는 것의 신체를 회복시키는 과정이기에 재생이라고 명명한다는 것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그리고 역시 이 부분도 상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이 부분을 ‘죽은 엄마는 꽃의 의인화’라면 어떠한가? 꽃잎이 떼어지고 이파리를 떼 내고 수술 부분이 조각난 꽃을 상기한다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이것이 정말 사람을 표현한 것이라면 머리, 팔, 다리라고 표현했을 듯싶다. 머리, 잔등이, 무릎은 꽃의 모양을 상기해 볼 때 수궁이 가는 표현이다.

아무튼 재생 부분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서 재생, 환생 부분이 사실인 듯 수용할 수 있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뼈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 살이 붙으면, 피가 돌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생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제주도 신화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

하는 것은 이들 텍스트 속, 재생 혹은 환생한 인물들은 그들이 살던 ‘공간’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신으로 좌정하거나 신들이 관장하는 꽃밭 일을 맡게 된다. 이것은 결국 죽은 자들은 다시 저 세상에서 환생한다는 지배적 인식 발현의 결과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생하거나 재생하는데 필요불가결한 필수적 매개체는 바로 ‘꽃’이다. 이러한 인식체계를 따라가 볼 때, 왜 ‘홍수아이’나 ‘네안데르탈인’이나 ‘이집트 파라오(투탕카멘)의 무덤’에 ‘꽃이 뿌려졌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까지도 장례식장에서 죽은 시신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 ‘여전히 꽃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우리 인류의 아주 오래되고도 뿌리 깊은 원초적 아키타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아키타입이 바로 제주도 신화 속에 내재해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이번 탐색의 큰 수확 중 하나이다.

### Ⅲ. 결 언

우리나라 제주도 신화에는 상당히 주요한 모티프인 꽃, 그것도 신화 텍스트를 이끄는 의미심장한 주요소로서 꽃이나 꽃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량 등장하고 있었다. 본 논의는 오직 제주도 신화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 내재한 ‘꽃’과 ‘꽃밭’의 의미나 기능, 상징성 등을 규명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꽃과 꽃밭은 1) 능력 증명의 징표 2) 재생, 환생 상징 3) 멸망시키거나 죽이는 기능 4) 인간 생명을 상징 5) 관상의 의미 6) 생체 치유의 기능 등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특히 주검을 구체적으로 재생시키거나 환생시키는데 필수적인 매개체는 바로 ‘꽃’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 왜 홍수아이나 네안데르탈인이나 이집트 파라오(투탕카멘)의 무덤에 꽃이 뿌려졌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까지도 장례의식에 꽃을 사용한다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바

로 우리 선조들이 했던 행위를 본받아서 하는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꽃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우리 인류의 아주 오래되고 뿌리 깊은 원초적 아키타입 중 하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에는 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 이러한 악한 기운은 결국은 선한 것이 물리친다는 것, 무릇 생명이란 나고 살다 죽고 또 새로운 생명이 이러한 순환을 계속한다는 것 등 철학의 기본 명제도 제주도 신화 텍스트 속에 내재해 있었다. 또한 최근 이론으로 알려진 자연을 통한 ‘치유요법’도 이미 제주도 신화 속에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꽃에다 비유한 것은 제주도는 사시사철 따뜻한 편이라 꽃이 지천이기 때문일 것이다. 선조들은 꽃은 봉우리가 맺고 피고 지고 다시 피고, 또 겨울이 되어 보이지 않다가도 봄에는 다시 재생하는 것이 인간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으면서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는 것과 닮아있다고 인식했었다고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신화에서 꽃과 꽃밭은 인간 생애의 모든 것이 녹아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태어나고, 성장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살다가 죽고, 다음 세대도 그렇게 이어지는 ‘인간 존속 법칙’이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통해 꽃의 일생과 닮았다고 인지했었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꽃은 바람이 불면 웃는 듯도 하고, 싸우는 듯도 하며, 꺾기기도 하고, 다시 살기도 하는 형상도 마치 인간의 그것과 흡사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꽃을 통해서 내세관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렇듯이 꽃과 꽃밭에는 인간 삶과 죽음의 다양한 측면이 형상화되어 있으며 통과의례적 측면도 아키타입으로 화석화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제주 신화 속 꽃과 꽃밭은 여러 가지의 원관념을 지닌 보조 관념으로서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형상적이고, 구체적이며, 가시적으로 직조시킨 응집물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는 꽃이 별로 없는 북방의 신화에는 나무 여신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기도 한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명혜, “죽음과 재생의 노래 <공무도하가>”, 『우리문학연구』 18집, 2005.
- 강정식, 《濟州島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강희안, 이병훈 옮김 『양화소록』, 을유문화사, 2005.
- 고연희 저, 『조선시대 산수화』, 돌베개, 2007.
- 고하수, 『한국의 꽃예술사 I』, 하수출판사, 1994.
- 김명희, 「무(巫)의 ‘꽃밭’에 나타난 ‘위대한 어머니’(The Great Mother)인 ‘원강암」, 『비교민속학』 47, 2012. 4 493-516
- 김민정, 필리핀 창조신화의 주요 모티프, 《세계신화의 이해》, 소화, 2009.
- 김선자, 《신화연구가 김선자의 중국소수민족 신화기행》, 안티쿠스, 2009.
- 김선자, 「중국 남부 소수민족 신화에 나타난 꽃의 여신 <花婆>와 민속, 그리고 서천꽃밭」, 『비교민속학』 45,
- 김은수, 「불교경전에 나타난 꽃의 의미와 화예 표현 형식」, 『한국화예디자인학회』 12집, 2005.
- 김진숙 외 「한국 전통 불교 꽃장식의 불단배치와 상징 이미지」, 『한국화예디자인학회 논문집』, Vol. 15. 2006.
- 김창일,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11집 2006.
- 김현선, 「臺灣 布農族濟州島宮古島の 敍事詩와 神話 比較」, 『탐라문화』 36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나카무라 고이치, 조성진, 조영렬 역, 『한시와 일화로 보는 꽃의 중국문화사』, 도서출판 뿌리와 이파리, 2004.
- 문영란, 「화훼의 상징적 알레고리를 통한 꽃말에 관한 연구」, 『한국화예디자인학회연구』 27권 0호, 한국화예디자인학회, 2012.
- 문영란, 「화예(꽃예술)의 사의성에 대한 미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문일평, 『花下漫筆』, 삼성문화재단, 1974.
- 박명희, 「한국 무교 의례에 나타난 꽃의 의미와 상징성에 대한 연구」, 『한국

- 화예디자인학연구』, 10권, 2004.
- 손광성, 『나의 꽃 문화 산책』, 을유문화사, 1996.
- 안영희, 「고대인들에게 반영된 꽃의 의미」, 『아시아여성연구』 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1972. 12.
-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사』 1, 2, 3 권, 넥서스 Books, 2004.
- 이수자, 「무속의례(巫俗儀禮)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제14집, 2007.
-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 이지한 역, 『순자-〈악론편 제20〉』, 자유문고, 2003.
- 조남권, 김종수 공역, 『樂記』, 민속원 2005.
- 튀브노와, 박지구 옮김, 『기호 상징. 신화』,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 정민, 『꽃들의 웃음판』, 사계절, 2005.
- 조르주 장(Georges Jean), 김형진 역, 『기호의 언어』, 시공사, 1997.
- 조흥윤, 「안락국전 연구-원앙부인 본풀이」, 『샤머니즘 연구』 2집, 한국샤머니즘학회, 2000.
- 윤호진, 『漢詩와 四季의 花木』, 교학사, 1997.
- 일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5.
- 최원오, 「한국 무속신화에서의 ‘웃음’의 기능과 위상」, 『겨레어문학』 53집, 2014.
- 최자영, 「요시야 노부코(吉屋信子)의 소녀소설-꽃이야기(花物語)」, 상명대학교대학원 일어일문학과석사학위 논문, 2006.
- 토마스 불핀치, 최혁순 옮김, 『그리스. 로마 신화』, 범우사, 1999.
-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 Abstract

*The Meanings and Symbolism of flowers in Jeju Island's Mythology* / Kang, Myeong-Hye

There are lots of flowers and flower-related contents as a major motif and significantly meaningful elements leading to text of myth in the mythology of Jeju Island, Korea. This paper is aimed at identifying the innate meanings, functions, and symbolism of 'flower' and 'flower garden' targeting on the text of Jeju Island's mythology only. As a result, the flowers and flower gardens are 1) a sign of capability proof 2) the symbol of rebirth and reincarnation 3) the functions of destroying and killing 4) the symbol of human life 5) the meaning of enjoying the flowers 6) the function of healing of body

All these things are compared to flowers due to the warm weather all the year round and a number of flowers in Jeju Island. It could postulate the ancestors thought that the flowers bud, blossom, and fall again and again, disappearing in Winter and reappearing in Spring like human's continuous resurrection, birth, living, and dying. Therefore the flowers and flower gardens in myth of Jeju Island are ingrained into human life. That is, rule of human existence underlies the fact that a human is born, grows, goes through many things, dies and continues to the next generation. So it is thought that human life is similar to flowers' life. Also when it is windy, flowers' features seem like smiling, fighting, bending and living again that is like human beings' feature. Thus flowers and flower gardens are imaged in the different aspects of human life and are regarded as the archetype in aspect of a rite of passage.

In conclusion, it is finalized flowers and flower gardens in Jeju Island's mythology as subsidiary concept containing a variety of main concepts is figurative, concrete and visible weaving condensed materials in a variety of different ways. It is also a solution to appearance of goddess of tree where there are few flowers in the myth of the north province.

Ley words: Sign, flower, Symbol, reviveReincarnation, look, Collapse, Biological, archetype.